

말씀 읽기와 묵상 - 오늘 본문을 읽거나 들으시고 먼저 말씀을 3분 정도 침묵 가운데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04편은 이전의 시편(103편)과 마찬가지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수미일치를 이루면서 이 전체의 통일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은택과 인자하심에 대한 송축이었다면 시편 104편은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와 은총 그리고 영광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시인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며’라고 친밀하게 부르면서 하나님이 심히 위대하신 분이라고 찬송합니다(1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며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지혜의 신이시기 때문입니다. 먼저 제 1연에 해당하는 1-4절을 보면, 하나님은 ‘빛을 입으시고’, ‘하늘을 휘장같이 치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는 빛과 하늘 즉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물과 구름, 바람, 그리고 번개 불꽃’이 주의 종으로 등장합니다(3-4절,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이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가장 강한 힘들을 마치 자신의 종처럼 부리고 계신 것입니다. 다음 제 2연(5-9절)은 하늘에서 내려와 땅으로 그 시선이 향하고 있습니다. 제 2연은 하나님께서 땅과 물의 기초를 놓으시고 그 사이에 경계를 지으신 분으로 묘사됩니다(9절, “주께서 물의 경계를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제 3연(10-18절)은 10절과 18절이 산으로 수미일치를 이루면서 그 산들 사이에서 살아가는 각종 들짐승과 온갖 식물들의 조화를 그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창조에는 그 분의 위대한 솜씨 뿐만 아니라 작은 동식물까지도 돌보시는 세심한 그의 통치와 섭리의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14절,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제 4연(19-23절)은 창세기의 네 번째 날과 같이 ‘해와 달’을 소개하면서 계절과 절기, 그리고 밤과 낮에 따라 살아가는 동물과 사람들의 생활상 즉, 삶의 패턴을 그립니다(20절,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삼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나오나이다.”; 22-23절, “해가 돌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이것도 하나님의 창조의 지혜상입니다. 제 5연(24-26절)은 ‘바다와 그 속에 사는 생물의 위대함’을 묘사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눈에 보이는 하늘과 이 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바다 속에도 엄청난 생물과 크고 작은 동물들이 존재합니다(25절,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특히 26절에 등장하는 리워야단은 읍기 말씀에도 등장하는데 인간이 보기에는 그것이 바다 괴물로 보이고 불필요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리워야단도 창조하시고 돌보시는 것입니다(욥 41:33,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 받았구나.”; 11절,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갓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읍기 41장에서 리워야단에 대한 말씀을 끝으로 읍은 그의 입을 다물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순복하게 됩니다(욥 42:2-3, “주께서는 못 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

듣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욥이 하나님께 품었던 불평은 하나님의 존재는 믿지만 그가 행하시는 일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위대하신 주권과 섭리의 사상은 욥으로 하여금 회개하기에 이르도록 한 것입니다. 마지막 제 6연과 7연은(27-35절)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동물과 인간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존재들로서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에 대해 모든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됩니다(28-29절,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퍼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낮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이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33절,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 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오늘 말씀을 묵상한대로 하나님의 위대하신 창조와 통치에 담겨 있는 그분의 지혜는 영원히 높이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발견하는 놀라운 사실은 창조의 지혜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셨다는 점입니다. 마치 욥과 같이 말입니다. 여기에는 몇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창조 자체부터 다른 피조물과 다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의 생각과 계획을 알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와 같이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대상이자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 즉 왕의 대리자로서 사명을 다하며 살아가야 할 존재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자녀 즉 사랑 받는 존귀한 자로 만드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저 우리에게 종으로서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만 맡기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고 존귀하게 돌보시킨다는 것입니다(빌 1:6,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 심지어 기도를 하시는 분이십니다(롬 8:26-27,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 세상에서 자신이 만든 피조물을 위해서 중보하는 신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와 창조의 지혜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특별한 창조하심에 감사하고 모든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적용 - 오늘 묵상을 통해 성령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고 다짐하도록 해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다짐과 기도제목

- 1. 적용의 기도:** 오늘 묵상을 통해 내게 주시는 말씀을 개인의 신앙과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 2. 우크라이나를 위한 기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종식되게 하옵소서. 러시아의 핵전쟁 위협으로부터 전세계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군인들과 군인 가족들, 민간인들, 난민들까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 3. 교회를 위한 기도:** 오늘은 밀포드 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 4. 선교지를 위한 기도:** 1 국 태일 선교사님을 위해서 중보합니다.